광주YMCA와 교육소비자문제연구원이 개설한 '교복 물려주고 물려입기 청소년 녹색장터'에서 19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새 학기 교복을 고르고 있다. 이번 장터는 오는 23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2층 무진관에서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교복, 10분의 1값에 사세요

시민단체 '교복 물려주기' 운동
23일까지 광주Y서 '녹색 장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나섰다. 이 곳에서는 한 벌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복을 10%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YMCA와 교육소비자문제연구원은 19~23일까지 5일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2층 무진관에서 '교복 물려주고 물려입기 청소년 녹색장터'를 연다.

행사장에는 지난 14~18일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증한 26개 중·고교 교복 300여벌이 진열돼 있다. 가격은 일반 교복의 10% 수준인 2만~2만5천원선(동복 기준)으로 수선이나 세탁을 마친 상태다.

이번 녹색장터에서는 판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복 무상기증이나 판매 대금의 10%를 제외한 판매가격을 되돌려 주는 유상기증까지 받는다. 판매 수익금의 10%는 녹색소비운동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학부모 최숙희(여·42·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미리 와서 판매하는 교복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깔끔해서 아이에게 입히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며 "매번 3명의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입히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사이즈가 맞는 교복이 있으면 꼭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YMCA 시민중계실 장참샘 간사는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이 갈수록 오염되는 우리 사회에서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세워주고 내가 소중히 입었던 교복을 다시 후배들에게 물려주면서 오는 뿌듯함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U대회 유치 시민 열의에 달렸다

광주시 실사 대비 범시민 붐 조성 시동
각계 지원단 구성…이벤트·홍보 등 나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의 최대 관건은 시민들의 열의와 관심도이다. 이는 현지 실사때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가 19일 '하계U대회 유치 범시민 붐 조성 계획'을 발표, 시민 참여 열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각계 각층의 지원단 구성을 통한 범시민 지원체계 확립과 언론 매체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범국민 서명운동 등이 그 골자다.

시는 우선 이 달말까지 10만 명 규모의 범시민지원단을 모집, 다음달 11일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대회 확정때까지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범시민지원단은 U대회 광주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홍보와 기초질서지키기 등 의식 제고 운동, 현지 실사단 방문시 환영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5개 자치구도 각각 별도의 유치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며, 500여 명 규모의 대학생 지원단도 꾸려진다.

다음달 13일에는 옛 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U대회 유치 기원 시민 한마음대회'를, 23일에는 염주체육관 광장~신대4거리 구간에서 범시민 건강걷기대회, 28일에는 U대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식목행사를 상무시민공원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1절 마라톤 대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내 주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유치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언론 홍보를 극대화해 지역의 유치 열기를 전달키로 했다.

광주시내 육교 20곳과 시청 및 각 구청, 유관기관 등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U대회 유치 필요성 및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영상 홍보물도 제작한다. U대회 관련 블로그 제작과 시·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한 홍보도 본격화된다.

이에 앞서 시는 18일부터 시 청사와 광주역,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등 시내 다중집합장소 13곳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며 학교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홍보도 병행된다.

한편 U대회 유치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희범 유치위원장 등은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FISU 본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각 국의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시장과 유치단은 23일 새 정부 출범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27일부터 다시 FISU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중국 하얼빈으로 떠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올 공사·용역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주시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시의 2008년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발주계획은 추정 금액 1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 135건, 용역 55건, 물품 구매 75건 등 총 265건이다.

시는 아울러 경쟁입찰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70억 원 미만의 일반 공사와 6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 원 미만의 전기·통신·소방 공사, 3억 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관내에 주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무등산 환경 복원 법정 다툼 일단락

대법, 주민들 무효 확인소송 기각

무등산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와 주민들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무등산 증심사 지구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무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무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무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결정'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지난 2004년부터 광주 지·고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각하,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시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총사업비 712억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착공된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현재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상가단지, 주차장 조성 등 2단계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시립도서관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오는 5월부터 광주시립도서관(무등, 사직, 산수)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1회 도서대출 기간도 15일로 대폭 늘어난다.

광주시는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8시, 7시였던 동·하절기 개관시간이 계절과 무관하게 오전 7시로 통일되고, 야간 개관시간도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1회 7일이었던 도서대출 기간도 15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출기간 만료 후 연장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객 증대와 대출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